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양학*

—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김학철

연세대학교 부교수, 기독교교양학

I. 머리말

우리는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면 그 전과 후가 같을 수 없다고 여긴다. 21 세기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평가받은 사건이 여럿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공동체에 따라 어떤 사건은 과장되고, 다른 사건은 축소되었다. 코로나는 이후의 역사에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기후위기를 제외하고는 코로나 팬데믹만큼 모든 세계의 일상을 바꾼 사건은 거의 없다. 2021년 8월 20일 현재 전 세계 확진환자는 209,076,320명, 그로 인한 사망자는 4,389,211명이다. 코로나로 가장 고통받는 12개국 중에는 G7에 속하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의 4개국이 있다.¹ 독일은 14번째로 코로나 피해를 당했다. 가장 강

<https://doi.org/10.18708/kjcs.2022.1.123.1.371>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3069866)

1 아래 표는 WHO 등이 파악한 현재 세계 코로나 환자의 현황을 보여준다.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covid19.who.int>, 2021년 8월 20일 접속.

	확진환자	사망	완치
미국	37,636,167	634,262,	-
인도	32,320,898	433,063	31,516,224
브라질	20,457,897	571,662	19,313,546

력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유했다고 평가받는 국가와 사회가 긴급 상황에 놓인 것은 코로나 위기가 광범위하고 강력한 ‘진짜 위기’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코로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될 것이다. 이전과는 달라진 형태일 가능성이 크지만, 의학과 정치와 시민 사회는 그것에 대응하고 적응하고 타협하며 이른바 새로운 일상을 구성할 것이다.

교양은 인간과 사회와 문화와 자연에 관한 본질적인 지식, 그와 함께 하는 사고력, 그리고 이 둘이 빚어내는 시민성을 고민한다. 기독교교양학 역시 코로나가 드러낸 혹은 더욱 도드라지게 밝힌 인간 및 사회와 얽힌 여러 문제를 기독교 자원을 통해 이해하고 사유하며, 그에서 빚어지는 시민성을 돌아보는 학문적 노력을 한다. 이 글은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교양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토론하고 숙고할 주제인 인지편향, 도덕감정, 타자화, 희생양 만들기, 선동의 구조와 논리 등을 기독교신앙과 연결하여 강의와 토론에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한다.

	확진환자	사망	완치
러시아	6,663,473	172,909	5,939,037
프랑스	6,533,383	113,055	0
영국	6,355,887	131,260	-
터키	6,118,508	53,507	5,636,282
아르헨티나	5,106,141	109,652	4,774,694
콜롬비아	4,877,323	123,781	4,698,770
스페인	4,745,558	82,883	-
이란	4,556,417	99,691	3,814,127
이탈리아	4,456,765	128,579	4,199,404

II. 위기의 시대와 도덕감정, 선동의 기법 그리고 인지편향

1. 부정편향과 도덕감정

인간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생존의 차원에서 보면 이익보다 손해가 더욱 결정적으로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직관적 표현처럼 “먹힐 때의 고통과 먹을 때의 기쁨”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² 고통의 회피가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행동의 더 큰 동기를 준다. 이렇게 부정적인 정보에 빨리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부정적인 경험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 인지하는 경향을 부정 편향(negativity bias)라고 부른다. 인간이 가진 이 편향성은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욱 집중하고, 나쁜 소식을 더욱 빨리 퍼트리며, 부정적 정서의 지속성과 그것이 더 많고 다양한 부수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³ 이 부정적 정서가 낳는 부수 감정 중에 코로나 위기를 맞아 ‘도덕 감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감정은 원초적이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것이다. 놀람이나 두려움 같은 즉흥적이고 물리적 상황에 대한 반응 감정이 있는 반면에, 사회·문화적으로 정교화된 감정도 있다. 도덕 감정이 그러하다. 도덕 감정은 사람의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다른 감정이 주로 개인의 이익이나 행동과 관련이 있다면 도덕 감정은 다른 사람 혹은 사회 전체의 이익 및 복지에도 연관된 고도로 사회화된 감정이다.⁴

2 존 메설리, 『인생의 모든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101가지 시선들』, 전대호 옮김 (서울: 펠로소픽, 2016), 151.

3 Paul Rozin & Edward B. Royzman,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001/4), 296-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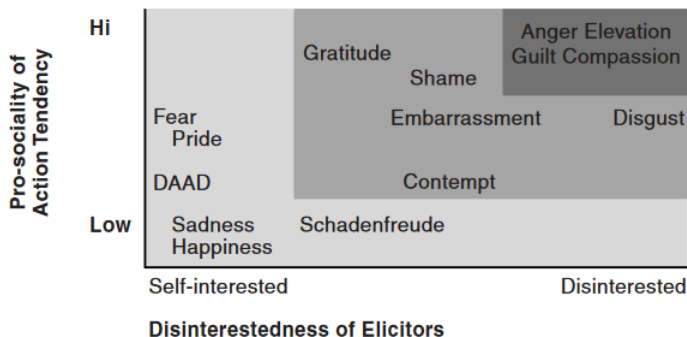
4 J. Haidt, “The Moral Emotion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11 (2003), 852-870. 하이트는 도덕 감정을 “사회 전체나 최소한 판단자나 행위자와는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나 복지와 연관된 감정”(853)이라고 정의한다.

도덕 감정은 자기와 더불어 사회나 타인의 이익과 복지가 침해받았을 때 일어나는 감정이고, 한 공동체 내 타인 및 공동체의 이익과 복지는 그 공동체가 가진 규범과 떼어 수 없기에 도덕 감정은 규범이 위반되었을 때 발생한다. 도덕 감정은 적절한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기도 하는데, 이 감정은 두 개의 원형적 특징을 띤다. 첫째, 행위자 개인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이도 일어난다. 둘째, 친 사회적인 행동 경향을 띤다.⁵

도덕 감정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그리고 자기와 타인의 귀속 책임에 따라 네 범주로 구분된다. ① 타인-정죄(other-condemning) 감정. 여기에는 경멸, 분노, 혐오가 속한다. ② 자기-의식(self-conscious) 감정. 수치, 당황, 죄책감 등이 이에 속한다. ③ 타인-고통(other-suffering) 감정.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연민이 속한다. ④ 타인-찬하(other-praising) 감정. 여기에는 감사와 고양(elevation) 등이 있다.

코로나 상황과 같은 위기 상황은 특정 집단을 향해 위의 네 감정을 모두 자극한다. 이 중에서 우리는 타인-정죄 감정인 분노, 혐오, 경멸이 도드라지는 여러 현상을 본다.⁶ 이것은 위기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분노는 좌

5 앞의 논문, 853-854. 아래의 표는 이 두 가지 특징에 따라 도덕 감정을 분류해 놓은 것이다.



6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Cendri A. Hutcherson & James J. Gross, "The Moral Emotions: A Social-functional Account of Anger, Disgust,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2011/4), 719-737을 보라.

절되거나 목표 성취가 방해받는 데에서 오는 반응으로, 자아나 자아와 가까운 것이 모욕을 당하거나, 침범을 당했을 때 일어나는 정서 상태다. 이때 공격성이 일어나 분노 대상을 제거하려 한다. 혐오는 더러운 것이 입에 닿을 수 있다는 불쾌감을 기초로 하고, 나아가 악덕이나 비열한 행동에 반응하는 정서다. 이것은 혐오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는 데로 이끈다. 기본적인 혐오 정서는 위생적인 더러움, 곧 불결함과 떨어지고자 하는 감정이다. 이후 인간은 도덕적 더러움에도 혐오의 감정을 갖게 되었다. 경멸은 공동체의 (신성한) 질서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정서 반응이다. 경멸은 배제와 차별의 기능을 수행한다.⁷

분노와 혐오와 경멸 그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것은 자연스레 일어나는 생물학적, 사회적 감정이고 순기능도 크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분노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비굴한 굴종이나 자기기만에 익숙한 상태이다. 혐오를 통해 더러운 것과 자신을 분리해내지 못한다면 사람은 병들 것이고, 도덕적인 악덕에서 혐오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미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경멸의 시선을 보내지 못할 이유도 없다. 문제는 이 세 감정은 선동의 통로로 악용되는 데에서 발생한다.

2. 선동의 기법

선동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그들의 이익과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

7 P Paul Rozin, Laura Lowery, Sumio Imada, & Jonathan Haidt,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999/4), 574-586. 이를 간략히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576쪽).

감정	주요 덕목
경멸	존중, 의무, 위계
분노	개인의 자유, 권리
혐오	신성성, 정결

해 타인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다. 말을 보태면 “그것은 지각을 조형하고 인식을 조작하며 행동을 유도하여 프로파간다를 펼치는 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조직적으로 고안된 노력이다.”⁸ 교육이 사회적 목적이 분명하고 공공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면, 선동은 공통의 이익과 복지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그룹을 위한 이익을 달성하는 데에 초점이 있고, 또 이를 위해 자신의 본래 목적을 감춘다는 데에 있다. 정보를 조작하거나 진실과 허위의 섞는 분야는 예술 영역도 있지만, 피카소의 말대로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거짓을 사용하고, (거짓된) 정치는 거짓말을 하기 위해 진실을 사용”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광고 역시 자신을 위해 여러 정보의 조작을 시도하지만, 소비자들은 그것이 광고라는 ‘장르’를 인식하고 광고자 역시 그것이 광고임을 드러낸다. 반면 선동은 자신의 ‘장르’를 감춘다. 타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선동은 나름의 논리 구조와 기법을 사용한다. 특히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선동의 핵심에 속한다.

이미 오래전에 프로파간다 분석 연구소(the Institute of Propaganda Analysis, IPA)⁹는 일곱 가지 선동의 기법을 제시한다. 첫째, 이름 부르기 (Name-calling)다.¹⁰ 이것은 자신의 경쟁자나 적대자를 묘사하면서 도덕적으로 나쁘거나 부정적인 뜻이 담긴 모욕적 언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생각이나 사상이라면 청중들이 그것을 배척하거나 비난할 만한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기법이다. 가령 정치 영역에서 ‘빨갱이’나 ‘친일’ 등이다. 신학 영역에서 ‘자유주의’나 ‘근본주의’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의명분(Glittering Generality) 제시다. 이것은 특정 행동이나 사

8 Garth S. Jowett & Victoria J. O'Donnel, *Propaganda & Persuasion* (Los Angeles: SAGE, 2015), 7.

9 이 연구소는 1937~1942년에 미국에 있었던 연구소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Institute for Propaganda Analysis,” Wikipedia, May 2020,

https://en.wikipedia.org/wiki/Institute_for_Propaganda_Analysis, 2021년 10월 20일 접속.

10 김정현,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43-45를 참조하라. 나는 이 책의 일곱 가지 선동 기법의 용어 번역을 따르지 않았다.

상, 혹은 단체 등을 대의명분과 관련짓는 것이다. 대의명분은 도덕적 가치를 그 대상에 부여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언행과 생각을 ‘애국’, ‘신앙’, ‘헌신’, ‘희생’ 등등과 연결한다. 셋째, 전이(transfer)다. 이것은 “존경받고 숭배되는 어떤 것의 권위, 인기, 명성 등을 끌어들여 선전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기법이다.”¹¹ 오늘날 정치 영역에서 태극기를 들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거나 예수나 하느님을 자신의 주장을 위해 동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증언(testimonial)은 존경받거나 혹은 혐오 받는 사람이 어떤 생각, 프로그램, 생산물, 혹은 사람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광고에서 유명인이 어떤 제품이 좋다고 말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보통 사람의 상식(plain folks) 기법이다. 이것은 선동자가 자신의 주장은 별다를 게 없고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마땅히 도달할 생각이라고 선전하는 기법이다. 자신은 보통 사람의 상식을 반영하고자 하고 그러한 데에 동의하는 이들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고 청중들에게 설득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라거나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이단적 생각에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가 이에 해당하는 기법이다. 여섯째, 카드 속임수(Card stacking) 기법이다. 이것은 사실과 거짓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고, 논리와 비논리적 진술로 대상의 최선 혹은 최악의 가능성을 부풀리는 것이다. 가령 몇 개의 행을 주려 우리나라의 형편이 패망 직전의 특정 나라의 상황과 비슷하느니 혹은 경제적으로 어떤 나라의 길을 가고 있다느니 하는 평가다. 또 어떤 정책이 가져올 최선의 혹은 최악의 결과를 제시하며 청중을 속이거나 위협하는 것도 포함된다. 특정한 법이나 사상 혹은 문화가 용인되면 교회와 기독교가 망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에 해당한다. 일곱째, 밴드웨건 기법이다. 이것은 ‘대세’에 편승하는 것이 잘못될 것도 없고 적절한 선택이라고 설득하는 것이다. 사회적 영역에서 ‘주류’이고, 기독교에서는 ‘정통’이나 ‘보수’ 등이 이 기법을 활용할 때 주로 등장한다.

11 앞의 책, 44.

오늘날에는 온라인, 특별히 영상이 선동에 매우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 그것은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진다. 피벨스는 “선동은 문장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면 사람들은 이미 선동을 당해있다”¹²고 말했는데, 영상은 반박을 위한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를 담기에 적절한 매체가 아니다. 하여 영상을 주로 다루는 플랫폼, 대표적으로 유튜브는 선동이 오고 가는 곳이 되었다. 그곳은 빠르고 접근이 쉬울 뿐 아니라 감정적 호소와 선동의 기법을 사용하기에 적절하다.¹³

3. 휴리스틱과 인지 편향

인간의 부정성 편향 그리고 위기 상황에 쉽게 유발되는 타인-정죄 도덕 감정, 나아가 선동의 기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상황은 인간의 인지 편향으로 증폭될 수 있다. 뇌과학자 리사 펠드먼 배럿은 “뇌는 생각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뇌의 핵심 임무는 이성이 아니다. 감정도 아니다. 상상도 아니다. 창의성이나 공감도 아니다. 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생존을 위해 에너지가 언제 얼마나 필요할지 예측함으로써 가치 있는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해내도록 신체를 제어하는 것, 곧 알로스타시스를 해내는 것이다.”¹⁴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여러 의문은 심리학 등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평상시 인간의 판단 역시 정보를 철저히 처리하는 과정을 거친다기보다는 ‘휴리스틱’(heuristics)에 의존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

12 이바로, 『버킨백과 플라톤: 최고의 사치 인문학』 (서울: 시대의 창, 2014), Ebook의 해당 페이지.

13 Shamsiah Abd Kadir, Anitawati Mohd Lokman, and Toshio Tsuchiya, “Emotion and Techniques of Propaganda in YouTube Video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9 (2016/1), 1-8.

14 리사 펠드먼 배럿,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뇌가 당신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1/2가지 진실』, 변지영 옮김 (서울: 더퀘스트, 2021).

다.¹⁵ 이것은 인간이 주변의 많은 정보를 포괄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정보를 단순화하여 직관적 판단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휴리스틱을 인간의 뇌가 에너지를 경제적으로 쓰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이른바 ‘인지적 구두쇠’(cognitive miser)의 경향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인지적 과정의 태만이 아니라 자연 판단(natural assessment)에 가까워 인간의 의식적 노력으로 이 경향성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 휴리스틱을 사용하여 판단할 때 오류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오류를 인지편향이라고 부른다. 휴리스틱의 유형으로 기준점과 조정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대표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 메타 휴리스틱 등이 대표적으로 제시되고, 이 휴리스틱에 따른 인지편향으로는 대조효과, 선택적 지각 오류, 사후 확신 편향, 결합 오류, 기저율 무시, 평균으로의 회귀 무시, 측면별 제거, 확률 무시 등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을 살펴보면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라는 인지부조화 이론의 통찰¹⁶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일으킨 전 세계적 위기와 그것이 빚은 여러 고통은 인간의 부정편향과 타인-정죄 도덕감정, 선동, 휴리스틱과 인지 편향을 통해 사태를 더욱 악화한다. 기독교교양학은 성서와 기독교의 자원을 통해 이러한 시대를 분별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다.

15 Thomas Gilovich, Dale Griffin, and Daniel Kahneman, *Heuristics and Biases: The Psychology of Judg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16 이 이론의 대표자격인 레온 페스팅거(Leon Festinger)와 그의 이론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Jerry Suls, “Cognitive dissonance of Leon Festinger,”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Leon-Festinger/Cognitive-dissonance>. 2021년 11월 30일 접속.

III. 성서의 상징세계와 도덕감정 및 인지 편향의 항상성 원리

위기 시에 인간의 부정편향과 도덕감정 그리고 선동의 논리와 구조와 기법, 나아가 인간의 휴리스틱과 인지 편향을 파악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능력이다. 이에 더해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이를 헤쳐나간 정신적 자원을 확보하고 활용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엇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무엇으로 향하는 것이다. 혹은 ‘벗어난다는 것’은 벗어나는 곳 외에 다른 곳을 상징하는 것이다. 기독교 성서의 상당 부분은 재난과 재난 이후를 반영하며, 위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모색하고 실현하고 희망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장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환난의 시대를 헤쳐나간 한 신앙공동체의 도덕감정과 비판정신을 살펴 정신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마태복음은 기원후 80~90년 사이 시리아 지역에서 기록되었다. 이때는 로마-유대 전쟁(기원후 66/67~70년)이 끝난 지 10~20년 사이로, 이 복음서는 ‘전쟁 문학’의 여러 특징을 보여준다. 전쟁 문학은 실함과 집의 상실, 폭력성 및 파괴성과 악마성, 기근과 극심한 가난, 결여된 인간성,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가치 등등을 제재(題材) 혹은 소재(素材)로 삼아 전쟁 체험을 직, 간접적으로 형상화하고 증언한다. 마태복음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러한 요소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마태복음의 주요 등장인물인 세례자 요한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리고 이 복음서의 일차 청중들은 폭력을 당했거나 앞으로 폭력이 가해질 대상자들이다.¹⁷ 마태복음이 묘사하는 폭력의 양상은 다양하다. 요한 갈통(Johan Galtung)의 구분에 따르자면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부터, 구조화된 폭력과

17 마태복음의 폭력에 관해서는 김학철, “마태복음의 폭력과 마태공동체: 마태공동체의 폭력의 트라우마 헤쳐 나가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1), 79-103을 보라. 이후 폭력에 관한 논의는 앞에 언급한 논문의 것을 필요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문화적 폭력이 모두 나오고 ‘합법적’·불법적 폭력 모두 묘사된다.¹⁸ 저자 마태는 아예 예수의 활동이 ‘바벨론 포로기’ 곧 식민 통치의 폭력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¹⁹ 마태 당시의 ‘바벨론’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로마 제국’을 가리켰다. 아기 예수는 지배자의 폭력을 피해 피난민 가정 이 되고, 이후에 예수는 이른바 공생애 동안 집단적, ‘합법적’, 문화적, 구조적, 물리적 폭력의 대상자가 된다. 피난민 가정의 아이였던 예수는 십자가형, 곧 폭력의 희생자로 삶을 마감한다. 그와 함께 하는 세례자 요한이나 이후 제자들 역시 같은 폭력의 희생자들이며, 희생자일 것이다(5:10-12; 10:17-18; 14:1-12; 21:33-46; 22:1-10; 23:34, 37-39).

폭력은 현시대의 것만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인 아벨부터 시작된 것이며,²⁰ 단지 인간사의 것만이 아니라 초자연적 세력이 결부된 우주적 차원의 문제다. 하늘나라, 곧 하느님의 통치를 구현하려는 노력은 사탄적 세력의 침공을 받는다(11:12). 거시와 미시, 과거부터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폭력과 폭력당함의 경험은 이른바 ‘한계적 경험’으로 부를 수 있다. 이에 마태복음에는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적 징후가 드러난다.

트라우마는 보통 정신적 외상 혹은 ‘지워지지 않은 마음의 상처’ 등으로 번역된다. 이것은 물리칠 수 없는 지속적이고 강한 경험으로 정신적 고통과 교란을 유발하는 병적인 것이다. 폭력적인 가학적 혹은 자학적 행동을 하도록 한다.²¹ 마태공동체가 겪은 각종 폭력, 가령 박해와 핍박, 도피와 배척,

18 갈통 외에도 다른 학자의 폭력 이론에 따라서도 마태복음에 나타난 폭력 양상을 분석할 수 있다. 갈통과 다른 학자들의 것을 비교해 보려면,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 갈통, 벤야민, 아렌트, 지젝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06 (2014), 323-356.

19 유배와 회복이 전체 신약성서의 메타내러티브라는 주장을 한 연구로는 티모 에스콜라, 『신약성서의 내러티브 신학』, 박찬웅, 권영주, 김학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20 차정식, “대를 잇는 희생의 한 계보,” 『예수와 신학적 상상력』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8), 308-325를 보라.

21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 — 5 · 18 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화 이론과 비평』 20 (2003), 262-282, 특히 262-264.

고문과 죽음, 배신과 갈등 등도 가해와 자해의 언어로 드러난다. 마태공동체는 폭력을 사용하여 적대자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종말론적 환상을 통해 신의 폭력에 호소한다.²² 예수는 심판자로서 적대자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선언한다. 마태복음 23장처럼 예수가 자신의 반대자들에게 저주와 욕을 반복적으로 선언하는 다른 복음서 본문은 없다. 마태는 마가 및 누가에 함께 나온 4개의 비유를 더욱 폭력적으로 각색한다(21:33-46; 22:1-14; 24:45-51; 25:14-30).

또 폭력의 트라우마는 자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마가복음(9:42-48)과 누가복음(17:1-2)의 경우 단 한 번만 나온 신체 절단의 본문이 마태에는 두 번 강조되고(5:29-30; 18:8-9), 작은 가해 폭력도 엄청난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예를 들어 마태의 예수만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에게 화를 내는 것만으로 심판을, ‘라가’라고 욕하는 이에게 ‘공의회’의 재판을, ‘바보’라고 하는 이에게는 지옥 불이 준비되었다고 선언한다(5:22). 이러한 폭력과 극단적인 분위기는 트라우마가 ‘승화’(sublimation)되지 못한 상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근본적으로 타인-정죄(other-condemning) 감정인 경멸, 분노, 혐오 및 자기-의식(self-conscious) 감정인 수치, 당황, 죄책감에 지배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대로 마태공동체 내부에 그러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 다른 도덕 감정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곧 타인-고통 감정과 타인-찬하 감정인 연민과 감사와 고양이(1:19; 2:10; 4:23; 5:3-12; 5:38-42; 8:3, 10, 17; 9:2, 12-13, 22, 35-36; 10:8; 11:25-30; 12:7, 17-21; 14:14; 15:32; 18:27; 20:34; 22:37-40; 25:35-40 등) 마태복음에 계속 나온다. 또 이른바 ‘평화주의자들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비폭력을 지지하는 구절도 있다(5:43-48). 용서(6:11, 14-15)를 강조하고 비난 중단을 촉구하고(7:1-4), 칼

22 존 콜린스는 이러한 형태의 보복을 ‘eschatological vengeance’라고 부른다. John J. Collins, “The Zeal of Phinehas: The Bible and the Legitimation of Violence,” *JBL* 122 (2003), 3-21. 특별히 14-18.

과 같은 무기 사용을 금지한다(26:52). 인간 사이의 심판을 거절하고 신적 폭력, 곧 정의를 온전히 실행할 신에게 보복을 위임한다. 이같이 그들은 폭력을 트라우마를 ‘헤쳐나간다’(working through).²³

마태의 예수와 세례자 요한 그리고 제자들이 공동으로 선포하는 하늘나라는 위기의 시대에 자신들의 하늘 정체성과 변성하는 삶 그리고 통치자적인 에토스를 풀어놓을 수 있는 상징세계였다.²⁴ 이 상징세계 속에서 그들은 도덕감정과 부정편향의 균형을 찾는다. 나는 이것을 생물학 용어인 ‘항상성’(homeostasis)을 전유하여 도덕감정과 인지 경향의 항상성 원리라고 부르자고 제안한다. 항상성은 생물학 용어로 “외부 환경과 생물체 내의 대응하여 순간순간 생물체내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기상, 쉽게 말해 가장 알맞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성”을 뜻한다.²⁵ “항상성이 깨어지면 자율신경계나 호르몬이 즉시 작용해 정상상태를 유지하려고 움직인다. 이처럼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는 힘 즉 항상성은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다. 밸런스의 상태, 즉 생명체의 균형과 조화의 상태를 ‘호메오스타시스’의 원리”라고 부른다.²⁶ 나는 마태복음의 내러티브가 만드는 상징세계, 특별히 ‘하늘나라’로 압축된 그것은 도덕감정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공동체 구성원들을 돕는다. 또 ‘하늘나라’는 부정편향의 폭주를 제어한다. 그것은 심판과 더불어 회복을 말하고, 저주와 동시에 복을 선언한다. 불의한 사탄적 세력의 기세를 비난하지만, 동시에 신의 궁극적 승리와 부활의 삶을 강조한다.

우리는 위에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성서의 메시지는

23 ‘Working through’를 이전에는 ‘정면통과’, ‘억압기제의 돌파’, ‘훈습(薰習)’, ‘성찰적 극복하기’, ‘탐색과정’ 등으로 번역하였다. 이 논문은 이를 ‘헤쳐 나가기’로 번역한다. 이에 대해서는 B. M. Hartung, “Working Through,”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by Rodney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1338.

24 김학철,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신약논단』 14 (2007/1), 1-37.

25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항상성 Homeostasis와 무의식의 행동,” 『해양한국』 2020 (2020/2), 150.

26 앞의 논문.

우리의 평상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의 시대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약자의 처지에서도 신앙의 상징세계 속에서 도덕감정과 인지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이것은 상황에 매몰되지 않는, 곧 종교본연의 성찰과 비판정신 그리고 초월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교수자는 성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악한 면모는 물론,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

IV.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

위기의 시대에 성서와 기독교 역사는 타자화와 이의 극복 시도, 또 희생양 만들기과 그것의 제어를 모두 보여준다. 이것은 모든 종교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다.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는 성서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 두 현상의 기원과 기능, 그리고 제어의 사례를 밝히고, 선동이나 편향적 사고를 성찰하고 제어하도록 도울 수 있다.

1. 타자화

“타자화는 상대방과 자신을 양분해 나와 다른 타인의 모습을 극대화하는 사고방식이다.”²⁷ “타자화의 틀 안에서 주체적 자아는 오롯이 나 자신이며 타인은 주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규정된다. 내가 상대방의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과 다른 특성을 마치 결합인 것처럼 여기는 과정에서 주체와 타인 사이 위계가 형성되기도 한다.”²⁸

구약성서에 나타난 유대인의 신앙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의 공통성

27 김지승 & 이광진, “지독한 악마의 희생양 만들기,” 『프랑스학연구』 92 (2020), 5-30. 인용은 15.

28 앞의 논문.

이 없지 않다. 그중 아웨가 히브리인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이스라엘’로 부르면서 상호 계약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웨는 이스라엘의 신으로 보호와 번영을 약속했고, 이스라엘은 아웨의 백성으로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웨는 율법의 수여를, 이스라엘은 그것의 준수를 계약의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배타성을 띠게 한다. 계약에 충실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선언되었다. 제의적 경계는 음식, 의복은 물론이고 절기와 안식일이라는 시간적 경계로 확장된다. 태어난 남자 아기에게 행하는 할례 또한 몸으로 다른 민족과 ‘구별’하는 표지였다. ‘거룩함’은 구분 혹은 구별을 의미했고, 비록 그것이 동시대의 약자로서 이스라엘/유대인의 생존 전략이었어도²⁹ 배타와 그에 따른 폭력을 불러온 것은 명확하다. 그들은 이른바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외국인과의 혼인 관계를 타락으로 여겼다.³⁰ 다른 나라 문화의 이식 역시 타락으로 정죄받았다.³¹

근동 제국들의 흥망성쇠 시대에 중심 밖의 늘 ‘변방’이었고 타자화되던 이스라엘/유대인들은 소수자의 언어를 통해 신앙을 근거로 제국이라는 중심을 도리어 타자화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런 타자화는 자연스럽게 동족 내부로 향해서도 일어난다. 예수 시대에 유대인 지도 세력들, 특히 예수의 운동에 맞섰던 이들은 동족을 타자화했고 예수는 이러한 타자화에 맞섰다. 이것이 이른바 ‘죄인’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갈등이었다. 마커스 보그는 이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룩의 정치학’과 예수의 ‘사랑의 정치학’의 충돌로 묘사한다.³²

예수는 사랑의 정치학을 실행한다. 그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귀환을

29 이관표, “모세적 구별과 희생양,” 『선교와 신학』 45 (2018), 235-261은 “모세적 구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신교적 문화 안에 존립해있던 폭력적인 시스템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밝힌다. 인용은 235.

30 대표적으로 비느하스와 맛다디아의 사례가 그러하다(민 25:1-18).

31 대표적으로 맛다디아 이야기를 들 수 있다.

32 마커스 J. 보그, 『예수 새로보기』, 김기석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조건 없이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눅 15:11-32). 부재 지주의 편에 섰다가 자신의 급한 처지 때문에 마을 공동체로 복귀하려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도 격려한다(눅 16:1-9). 사회의 타자였던 ‘죄인’은 다시 식탁으로 초대받고, 예수는 타자화된 ‘세리’의 초대도 받아들인다. 타자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이야기도 가르친다. 타자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의 동력(動力)과 원칙은 폐기되고 새로운 질서가 선포된다. 새로운 질서는 기존 세계를 형성했던(귀속 및 성취) 지위를 폐지하고, 예수가 선포한 신의 은혜와 그것에 응답하여 자신의 삶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비록 이것은 다시 그 개편된 공동체 내의 타자화를 반복하지만(예를 들어 마태복음 13:23-30의 ‘밀과 가라지 비유’), 예수의 메시지는 언제나 급진적으로 신의 은혜로 삶을 반복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청한다. 예수는 타자화의 근거처럼 활용되던 ‘율법’을 ‘완성’한다면서 신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

이후 기독교의 역사도 타자화와 반타자화 사이를 오고 갔다. 기독교가 약한 곳에서 외부의 타자화는 생존 전략으로, 반면에 강한 곳에서의 외부의 타자화는 권력 유지 정책으로 기능했다. 기독교교양학은 이러한 성서와 기독교 역사에서 타자화 현상을 살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타자화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전개할 수 있다.

2. 희생양 만들기

희생양 만들기과 타자화는 한데 묶여 선동에 동원된다. “희생양은 속죄 의식에 사용되는 제의적 희생물이다. 제의에서 대제사장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을 제의에 사용되는 동물에 떠넘긴다. 희생물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 의해 전체를 대체하고 전체에게 바쳐’진다는 메커니즘에 의거한 것이다.”³³ 말을 보태면, 희생양 만들기는 공동

33 김지승 & 이광진, “지독한 악마의 희생양 만들기,” 20. 인용 안에 작은 따옴표 인용은 김모

체에 발생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소수에게 책임을 돌리고 그들에게 폭력을 가해 위기 상황에 불안을 느끼는 공동체의 심리적 해결을 도모하는 폭력적 합의다. 희생양을 죽이거나 추방하여 그로부터 공동체는 죄/악에서 깨끗하게 되고 성스러움과 안정을 얻는다.

희생양 제의 및 그 메커니즘은 구약 레위기 16장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³⁴ 예수의 죽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되기도 한다.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희생양과 같이 예수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한다. 예수는 사람들의 죄를 씻고 다시 새로워진 상태에서 신과의 삶을 보장받으려 한다. 히브리서 9:12-14은 예수 및 그의 죽음당함을 이런 맥락에서 요약적으로 표현하였다.

¹²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분 자신의 피로써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¹³ 염소 및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부정한 사람들에게 뿌려 그 몸을 정결토록 하여 거룩하게 한다면, ¹⁴ 영원한 영을 통해 하나님께 흠 없는 자신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죽음으로 이끄는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까?(필자의 번역)

예수가 희생양이라는 것은 예수가 죄를 지어 처벌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희생양 만들기는 희생양이 죄/악을 지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죄/악으로부터 빚어진 혹은 느닷없는 재해가 만든 위기 상황에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 쓴 것’이라고 밝혀준다.

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서울: 살림출판사, 2008), 184에서 재인용.
³⁴ 이경희, “피 흘림 없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끊는 내러티브의 힘,” 『장신논단』 52 (2020/1), 175-200. 이 논문은 “르네 지라르의 모방욕망이론으로 사무엘하 11-12장을 읽을 때, 독자에게 어떤 변화(희생양 메커니즘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저항)가 있나?”라는 질문을 다룬다.

김진석은 이런 희생양 만들기가 “문명에 내재적인 불안과 공포를 치유하지 못하는 한, 희생양을 만드는 불행한 폭력도 사라지지 않을 것”³⁵이라고 진단한다. 나아가 그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엉뚱한 희생양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은 이념의 차원에서는 옳을 수 있”³⁶으나 오늘날 매체의 발달로 희생양 만들기의 양상이 복잡해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인터넷 등의 발달이 가져온 대량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무제한적으로 퍼지는 형태가 이른바 주류 사회가 소수자/소수집단이나 개인을 목표로 하는 희생양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희생양 생산-유통-소비의 매커니즘 환경을 만들었지만, 기독교교양학은 그 핵심에 있는 비판 정신과 성찰의 힘을 기독교의 자원에서 끌어오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고 있는지를 분별해 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폭력이 인간 및 인간 사회의 도구적이거나 부차적 성격이 아니라 존재론적 특징³⁷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고백하고 성찰하게 하는 역할을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토론할 수 있다.

기독교교양 강의실에서 교수자는 기독교의 제의와 신앙에 폭력의 주제가 본연적이며, 그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빈번하게 드러났다는 점을 매우 날카롭고 솔직하게 폭로해야 한다. 동시에 희생양 만들기를 비롯한 폭력의 세력에 저항해 온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역사 역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1346년에 퍼지기 시작한 흑사병은 유럽 몇 곳에서 인구의 1/3~2/3를 죽였다. 이때 유대인들이 그 일의 배후로 또 그 재난을 기회로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모함이 일어났다. 전형적인 희생양 만들기다. 이때 1348년 발표한 교서에서 교황 클레멘트 6세(Clement VI)은 흑사병 배후에 유대인이 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35 김진석, “집단은 희생양 만들기를 멈출 수 있을까,” 『철학과 현실』 66 (2005), 26-45. 인용은 41.

36 앞의 논문.

37 모리스 메를르 폰티,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232.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8 (2016), 629-654 중 633에서 재인용.

유대인을 비난하는 이들은 “거짓말쟁이인 악마에 꺾임을 당한 것이다.”³⁸ 이른바 ‘마녀사냥’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경우도 위기의 시대가 놓인 사회, 문화, 역사의 전후 맥락과 당시 부정편향, 도덕감정, 인지편향, 선동과 희생양 만들기 및 타자화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예다.³⁹

십자가 형을 받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주도적 세력이 메시아를 죽인 폭력적 실체라는 것과 그에 저항하다가 희생당한 인물이 도리어 구세주라는 신앙이다.⁴⁰ 기독교의 부활 이야기에서 살해당한 메시아는 부활하지만, 그는 살해자들에게 복수하지 않는다. 대신 제자들이 선포할 메시지는 살해당한 사람이 구세주라는 것과 그가 살해당한 어린양으로 통치한다는 것이다. 살해당한 희생양이 신적 통치의 주체가 된다는 역설이다.

V. 맺는말

기독교교양학은 인간과 사회와 문화를 기독교 자원을 통해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기독교 내외부 모두를 향한 성찰과 다른 삶의 가능성 혹은 초월의 여지를 제공하려 노력한다. 코로나 시대는 언제나 반복되는 위기 담론의 연장이 아니며 인간 삶의 실제적인 위협이라 할 수 있다. 이때 인간이 가진 인지편향과 도덕감정은 한쪽 방향으로 흐르고, 위기를 가중하고 파괴적 결과를 낳는 선동가들은 이를 악용하기 쉽다. 기독교교양학은 기독교의 신앙

38 David B. Green, “This Day in Jewish History | 1348: Jews Aren't Behind the Black Death, Pope Clarifies,” *HAARETZ*, <https://www.haaretz.com/jewishpremium-1348-jews-aren-t-behind-the-black-death-pope-/clarifies-1.5405782>, 2021년 12월 13일 접속.

우물에 독을 탔다는 것은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에게 가해진 모함과 일치한다.

39 주경철, 『마녀 서구 문명은 왜 마녀를 필요로 했는가』 (서울: 생각의 힘, 2016).

40 이에 대해서는 김학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과주: 문학동네, 2016), 131-140을 보라.

이 신앙의 상징세계를 통해 치우친 인지 및 감정 형성의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밝힌다. 나아가 성서와 기독교 역사에서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의 존재론적 측면을 돌아보도록 하고, 또 이에 대한 저항과 수정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이 논문은 교양교육의 기본적인 목적, 곧 인간과 역사와 문화의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시민성 함양을 위해 기독교교양학 강의실에서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이는 기독교 안팎에서 개인과 사회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거룩한 순교희망자들’을 경계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어 Keywords

기독교교양, 부정편향, 도덕감정, 타자화, 희생양 만들기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Negative Bias, Moral Emotions, Othering, Scapegoating

접수일: 2021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 2021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17일

참고문헌

- 김모세. 『르네 지라르, 욕망, 폭력, 구원의 인류학』. 서울: 살림출판사, 2008.
- 김정현.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활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김지승 & 이광진. “지독한 악마의 희생양 만들기.” 『프랑스학연구』 92 (2020): 5-30.
- 김진석. “집단은 희생양 만들기를 멈출 수 있을까.” 『철학과 현실』 66 (2005): 26-45.
- 김학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 파주: 문학동네, 2016.
- . “마태복음의 폭력과 마태공동체: 마태공동체의 폭력의 트라우마 헤쳐 나가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 (2009/1): 79-103
- . “마태복음의 ‘하늘나라’를 다시 살핌.” 『신약논단』 14 (2007/1): 1-37.
- 메설리, 존. 『인생의 모든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한 101가지 시선들』. 전대호 옮김. 서울: 필로소픽, 2016.
- 배럿, 리사 펠드먼.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뇌가 당시에 관해 말할 수 있는 7과 1/2가지 진실』. 변지영 옮김. 서울: 더퀘스트, 2021.
- 보그, 마커스 J. 『예수 새로보기』. 김기석 옮김.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 에스콜라, 티모. 『신약성서의 내려티브 신학』. 박찬웅·권영주·김학철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21.
- 이경희. “피 흘림 없이 희생양 메커니즘을 끊는 내려티브의 힘.” 『장신논단』 52 (2020/1): 175-200.
- 이관표. “모세적 구별과 희생양.” 『선교와 신학』 45 (2018): 235-261.
- 이문영. “폭력 개념에 대한 고찰 —갈통, 벤야민, 아렌트, 지젝을 중심으로.” 『역사비평』 106 (2014): 323-356.
- 이바로. 『버킨백과 플라톤: 최고의 사치 인문학』. 서울: 시대의창, 2014.
- 이종원. “신화와 종교 속에서의 폭력 —르네 지라르와 조르주 아감벤의 이론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48 (2016): 629-654.
- 장일구. “역사적 원상과 서사적 치유의 주제학 —5.18 관련 소설을 사례로.”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0 (2003): 262-282.
- 주경철. 『마녀 서구 문명은 왜 마녀를 필요로 했는가』. 서울: 생각의 힘, 2016.
- 차정식. 『예수와 신학적 상상력』. 경기: 한국학술정보, 2008.
- 퐁티, 모리스 메를로. 『휴머니즘과 폭력』. 박현모 외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항상성 Homeostasis와 무의식의 행동.” 『해양한국』 2020 (2020/2): 150.
- Collins, John J. “The Zeal of Phinehas: The Bible and the Legitimation of Violence.” *JBL* 122 (2003): 3-21.
- Gilovich, Thomas., Dale Griffin, and Daniel Kahneman. *Heuristics and Biases: The*

- Psychology of Judg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 Haidt, J. "The Moral Emotion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11 (2003): 852-870.
- Hartung, B. M. "Working Through." in *Dictionary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Ed. by Rodney Hunter, Nashville, Abingdon Press, 1990.
- "WHO Coronavirus (COVID-19) Dashboard,"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covid19.who.int>. 2021년 8월 20일 접속. "Institute for Propaganda Analysis." *Wikipedia*. May 2020. https://en.wikipedia.org/wiki/Institute_for_Propaganda_Analysis. 2021년 10월 20일 접속.
- "This Day in Jewish History | 1348: Jews Aren't Behind the Black Death, Pope Clarifies." *HAARETZ*. <https://www.haaretz.com/jewish/.premium-1348-jews-aren-t-behind-the-black-death-pope-clarifies-1.5405782>. 2021년 10월 20일 접속.
- Hutcherson, Cendri A. & James J. Gross, "The Moral Emotions: A Social-functional Account of Anger, Disgust, and Contemp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0 (2011/4): 719-737.
- Jowett, Garth S., & Victoria J. O'Donnel, *Propaganda & Persuasion*, Los Angeles: SAGE, 2015.
- Kadir, Shamsiah Abd., Anitawati Mohd Lokman, and Toshio Tsuchiya, "Emotion and Techniques of Propaganda in YouTube Videos," *Indian Journal of Science and Technology* 9 (2016/1), 1-8.
- Rozin, Paul, & Edward B. Royzman, "Negativity Bias, Negativity Dominance, and Contag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 (2001/4): 296-320.
- Rozin, Paul., Laura Lowery, Sumio Imada & Jonathan Haidt, "The CAD Triad Hypothesis: A Mapping between Three Moral Emotions (contempt, anger, disgust) and Three Moral Codes (community, autonomy, divin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1999/4): 574-586.
- Suls, Jerry, "Cognitive dissonance of Leon Festinger," *Britannica*. <https://www.britannica.com/biography/Leon-Festinger/Cognitive-dissonance>. 2021년 11월 30일 접속.

한글 초록

이 논문은 팬데믹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 기독교의 자원을 통해 인간과 사회와 문화의 필수적인 지식을 전하고, 비판적이고 성찰적이며 창조적 사고력을 증진하며, 이 둘을 근거로 시민성 교육을 수행하는 목적을 갖는 기독교교양 교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위기의 시대에 인간의 부정편향과 분노, 혐오, 경멸같은 타인-정죄의 도덕 감정은 강화되고, 선동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더 쉽게 악용하여 사회를 파괴와 혼란으로 몰아간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편향과 휴리스틱 사고는 사회적 소수자가 타자화와 희생양으로 폭력적 희생을 당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할 수 있다. 기독교교양학은 언급한 위기 상황 속에 벌어지는 여러 현상 및 사례들을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찾아 그 기원과 성격을 파악한다. 또 성서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타자화와 희생양 만들기를 통해 가해와 피해의 사례와 역동을 제시하고 토론하도록 하여, 성서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치우친 도덕감정과 인지 편향의 균형을 잡는 상징세계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책임을 성찰하도록 도울 수 있다.

Teaching the Christianity in the Liberal-Arts Classroom in the Era of Pandemic

Hak Chol Kim, Ph.D.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College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era of pandemic. In times of crisis, Human negativity bias and other-condemning moral emotions (anger, contempt, and disgust) are intensified, making it easier for propagandists to take advantage of the circumstance, and social minorities are victimized by ‘othering’ and ‘scapegoating.’

The Christian liberal arts education identifies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various phenomena and examples caused by social crises throughout the Bible and Christian history. It also analyzes the dynamics of violence in the Christian resources, providing opportunities for reflection on moral emotions and cognitive bias.